

남광주시장 '기차 夜시장'으로 재탄생

'쌈음식문화 투어' 주제 9월 9일부터 매주 금·토 개장

기차 모양 매대·사평역 경관 조성...광주 3대 夜시장 기대

광주 남광주시장이 오는 9월 전반기에서 농·수산물 실어나르던 옛 남광주역 기차를 모티브 한 먹거리 중심의 야(夜) 시장으로 다시 태어난다.

남광주시장은 광주의 명소로 자리를 잡은 대인예술아시아, 1913송정역시장과 함께 외지인들의 야간 관광명소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31일 광주시 동구에 따르면 '밤기차와 함께하는 아시아음식문화 투어'를 콘셉트로 한 '남광주밤기차야시장'이 오는 9월9일 정식 개장한다. 남광주밤기차야시장은 매주 금·토요일 해가 진 이후부터 자정까지 문을 연다.

동구청은 남광주시장·남광주해뜨는시장 상인회 등과 함께 모두 10억원(국·시비 각 5억원)의 예산을 들여 남광주야시장 조성 작업을 추진해왔다. 현재 기본계획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디자인을 만들고 있다.

동구는 남광주역을 토대로 성장한 남광주시장의 역사적 관계를 남광주밤기차야시장에 녹여낸다는 계획이다. 또 수산물 특화시장이라는 남광주시장의 특성을 살려 먹거리 중심의 야시장으로 특화한다. 생선구이와 같은 수산물을 이용한 음식과 납도음식, 다문화음식 등이 한 곳에서 어우러지는 '아시아푸드'존을 조성한

다는 목표다.

남광주역은 1930년 신광주역으로 개통한 뒤 1938년 남광주역으로 이름을 바꿨다. 1960년대에는 경전선 철도를 통해 보성과 화순 등 전남권에서 수산물과 농산물 등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호황을 누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 2000년 도심철도 이전에 따른 남광주역 폐쇄와 도심 공동화 현상이 겹치면서 점차 침체에 접어들었다.

동구는 남광주시장에 사라진 기차역에 대한 향수와 기차 여행에 대한 동경을 디자인해 남광주밤기차야시장에 입힐 예정이다. 청년 창업자 등이 이용하는 기차 모양의 매대와 기차역을 연상시키는 시장 경관을 조성해 시장을 찾는 이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관광객들이 지나는 바닷은 철로 등으로 꾸미고,

다양한 공연이 오르는 무대는 터널 모양으로 형상화한다.

또 달과 별, 시 등을 미디어아트로 형상화한 경관 조명을 도입한다. 남광주역을 모델로 한 객주 시인의 '사평역에서', 남광주에서 일어나는 일을 담당하게 그려낸 박주관 시인의 '남광주' 등 문학 작품들도 시장 곳곳에 입혀진다.

운영은 상인회 중심의 협의체와 외부 전문가들이 맡게 된다.

동구 관계자는 "남광주밤기차야시장이 개장하면 대인예술아시아, 1913송정역시장 등과 함께 3대 특화시장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근 양림동과 푸른길공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해 문화, 관광, 먹거리가 어우러지는 전국적인 야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



꼭 알아야 할 '생존수영법' 지난 31일 광주 남부대 실내수영장에서 주월초교 3학년 학생들이 체육시간을 통해 수영장 강사들에게 빈 플라스틱 음료수병 2개를 활용한 '생존수영법'을 배우고 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초등학생들에게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수영 교육을 의무화 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올 광주의 5월 역대 두번째로 더웠다

10년간 평균기온은 0.8도 상승...평균 최고기온 25.9도

광주의 5월 기온이 1973년 관측 이후 두 번째로 뜨거웠다.

31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5월(1~30일) 광주의 평균기온은 19.7도로 역대 5월 평균기온 최고를 기록한 2012년(20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최고기온은 25.9도로 역대 5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온시점은 전국 45개의 관측망을 구축한 1973년이다.

광주는 지난 18일 낮 최고기온이 31.1도까지 올라가면서 5월 중순 일 최고기온 역대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5월 중 기온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초여름 날씨를 보인 18~22일째다. 지난 18일을 정점으로 20일 30도, 21일 30.5도, 22일 30.3도 등 5월중 일 최고기온 30도 이상일수는 4일로 기록됐다.

전반적으로 5월 기온이 높았던 이유는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서풍 계열의 따뜻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돼 평균기온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특히 18~22일 사이에는 중국 북부와 몽골에서 가열된 공기가 우리나라 상공으로 유입되고, 우리나라 부근으로 고압대가 정체하면서 고온·건조한 날씨가 이어졌다는 분석

이다.

5월 기온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최근 10년(2006~2015년) 광주의 5월 평균기온과 평균최고기온은 각각 19.1도와 25.4도로 평년(2006~2015년)보다 각각 0.8도, 1.1도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5월에는 평년보다 각각 1.4씩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되는 폭염주의보(경보 35도 이상)는 올해 없었다. 최근 10년 광주의 평균 폭염일수는 5월 0.4일, 6월 0.5일, 7월 4.3일, 8월 9.1일 등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경찰 '범죄예방진단팀' 설치

전국 일선 경찰서에 '범죄예방진단팀'이 설치된다. 이 팀은 지역사회의 범죄 취약요소를 파악해 예방책을 세우고 민간과 협업을 담당할 경찰관들이다.

31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2개월간 전국 11개 경찰서에서 시범 운용하던 '범죄예방진단팀'(CPO)이 6월부터 전국 경찰서에 설치된다. 최근 서울 강남 '화장실 살인사건'으로 여성들의 범죄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진 점을 고려해 전국에 확대하는 것이다. 이들은 소속 관서가 관할하는 지역이나 시설의 사회·물리적 환경을 진단해 범죄 취약요소를 파악해 예방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단체 등과 시설이나 환경 개선 유도 임무를 맡는다. /박정욱기자 jwpark@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19, 해질 19:42, 달뜨기 02:27, 달지기 15:12

그늘을 찾아서

대체로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19/30	보성	16/27
목포	18/26	순천	19/28
여수	19/25	영광	17/28
나주	18/30	진도	18/25
완도	18/26	전주	16/29
구례	16/30	군산	16/25
강진	18/27	남원	17/29
해남	17/27	홍산도	16/22
장성	16/29		



바다 날씨

지역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북동	0.5	북동~동	0.5
남부	북~북동	0.5~1.0	북동~동	0.5~1.0
남해	북~북동	0.5	북동~동	0.5~1.0
서부	북~북동	0.5~1.5	북동~동	1.0~2.5
남해(서)	북~북동	0.5~1.5	북동~동	1.0~1.5

생활지수

주요	주의
식중독	높음
자외선	한때나쁨
미세먼지	

주간 날씨

2(목)	3(금)	4(토)	5(일)	6(월)	7(화)	8(수)
☀	☀	☀	☀	☀	☀	☀
16/30	17/30	18/28	17/30	17/30	17/30	18/30

근로정신대 소녀 죽음마저도 선전도구로

시민모임 오늘 광주 규탄회전

일본이 근로정신대를 강제로 끌고간 노역을 시킨 것도 모자라 이들의 죽음을 미화해 선전도구로 삼은 사실이 드러났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기관지 '매일신보'는 1944년 12월24일자 지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김순례·이정숙 양의 죽음에 대해 "남자로 못 태어나 총을 메고 싸움을 못하러가니 그 대신 비행기 생산에 산업전사가 되겠다고 굳은 결의를 가지고 여자정신대에 참가한 군국의 정령을 가진 소녀"라고 보도했다.

김양 등은 광주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같은 해 5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로 강제동원돼 12월 7일 나고야지역을 강타한 도난카이 지진으로 희생됐다.

매일신보는 지진으로 무너져내린 공장에서 몸을 피하지 못한 10대 소녀들의 죽음을 '순직을 하는 그 순간까지도 비행기 증산에 좀 더 활동 못함을 부끄러워하며, 선반 앞을 떠나지 않았다'고 묘사했다. 당시 공장에서는 '근로정신대' 피해자 6명이 건물터미에 깔려 목숨을 잃었고, 매일신보는 12월23일부터 이를에 걸쳐 이들의 죽음을 실제상황과 동떨어진 내용으로 미화했다.

이같은 일제의 만행은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1일 오전 10시 광주시청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70여년간 감춰졌던 일제의 만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오늘부터 안전띠 안매면 고속도로 진입 불가

1일 고속도로에 드나드는 차량은 탑승자 중 단 한 명이라도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진입이 불가능해진다. 또 차량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3만원(도로교통법 위반)을 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는 6월 1일부터 고속도로 모든 톨게이트와 주요 휴게소·주유소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과 화물차 졸음 사고 방지를 위한 대대적 '교통사

고 예방 캠페인'에 나선다. 도로공사는 캠페인 첫날인 1일에는 톨게이트 입구에서 안전띠 착용을 안내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경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안전띠 미착용 사망자 수는 연평균 90명 정도로 이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33%에 달하는 수치다. 도로공사가 캠페인에 나선 이유도 여기에 있다. /김형호기자 khh@

전북의 랜드마크호텔 **특별분양!!** **마지막 회사보유분**

전주 한옥마을 라마다 @ncore 호텔

RAMADA JEONJU @ncore

10년 수익보장

실투자 6천만원 **월수익 100만원**

계약서 발행 2분만에 완판신화!!

1899-8735 **NAVER** 라마다 전주 검색

2017년 명품의 가치가 증명됩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60406-증-81650호

www.sejonghospi.com

세종요양병원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453(금동 211-10)

진료내용

치료중점·어르신 중점진료

인공신장실, 전문재활치료실

세종요양병원은 수술 후 재활, 뇌졸중, 요양, 암, 치매, 인공신장실, 집중치료실 등 **요양 및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분**을 위해 마음까지 치료하겠습니다.

전문 재활치료실 운영

운동/작업/통증치료실 운영 **재활의학과 전문의 남두현 원장**

진료분야 **중추신경계**

-뇌신경계: 뇌출혈, 뇌경색, 외상성뇌손상, 뇌종양
-척추신경계: 외상성척추손상, 척추증, 척추염

근골격계

-수술 후 회복 재활: 인공관절치환술, 골절, 인대손상
-통증재활: 스포츠손상, 관절염, 근육손상, 근막통증후군

세종요양병원

장기요양·수술후 재활·암케어병동·치매·중풍·집중치료실·인공신장실

대표전화 **(062)236-5200**

의사·한의학사 협력 진료 병원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453(금동 211-10)